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최 희 철[†]

단국대학교

황 매 향

경인교육대학교

김 연 진

단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장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관계성을 충족할수록 2년 뒤의 삶의 만족에서의 변화에 정적인 종단적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것과 그 역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교 2학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5년간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 자료 중 1차, 3차, 5차년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반면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이후 시점의 부모와의 관계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방과 처치에서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실제와 부모교육에 갖는 함의, 이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자기결정성, 기본욕구, 관계성, 삶의 만족, 종단자료, 청소년, 부모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제 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최희철,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Tel : 010-6320-9081, E-mail : warm_mind@hanmail.net

청소년의 삶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삶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등 10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Atkinson, 1988)는 응답자의 3/4 정도가 대체로 행복하고, 자기를 잘 통제하며, 성, 우정 등에 문제가 야기되면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청소년들은 슬픔이나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어떤 청소년들은 자살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을 살핀 한 연구는 응답자의 5%만이 현재 자신의 삶에 전적으로 만족하며, 69%는 세상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사한 사회계층에 속하는 한국과 미국의 중·고등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Park & Huebner, 2005).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을 살핀 횡단 및 종단 연구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만족 정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Park, 2005). 이 결과들은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이 외국 청소년에 비하여 빈약할 수 있고,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도달하였을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조명을 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을 취해왔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무엇이고, 비행, 일탈, 학교 중단, 자살, 중독 등의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청소년의 삶의 질(예: 삶에 대한 만

족, 심리적 안녕감)에 관심을 둔 접근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학교,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더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경험은 무엇인가 등에 관심을 모았다(예: 김의철, 박영신, 2004). 전자에 비해 후자는 청소년기의 특징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둔다는 점과 청소년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을 밝혀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청소년 지도 및 교육 전문가와 조력서비스 전문가들도 지지하는 입장이다(예,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삶의 질은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력, 환경, 제도 등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개인들 자신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게끔 하는 주관적 접근을 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접근은 주관적 행복이론으로 불린다(곽금주, 1995; Diener, 1984, 2000; Pavot & Diener, 1993). Diener(2000)는 주관적 행복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린 정서적인 평가(긍정적 정서의 빈도, 부정적 정서의 빈도)와 인지적인 평가(삶의 만족)로 정의한다. 주관적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예,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최희철, 김병석, 김지현, 2005; Diener & Diener, 1995; Emmons & Diener, 1986; Myers & Diener, 199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아 시작단계에

있다.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을 살핀 연구들은 삶의 만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김의철, 박영신, 2004; 김혜원, 홍미애, 2007;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이명순, 변미희, 2007;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Gilman, Huebner, & Laughlin, 2000;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다수의 연구자들은 인구학적 변인, 개인 내적 변인, 대인간 변인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인구학적인 변인(예, 연령, 부의 직업)들은 삶의 만족과 약한 관계를 보였다. 개인 내 특성들은(예, 자기존중감) 인구학적 변인보다 삶의 만족과 더 강한 관계를 보였다(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차경호, 2001; Mccullough, Huebner, & Laughlin, 2000). 최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 간 특성이 좋을수록 삶에 만족한다고 나타난 결과들이(Diener, Suh, Lucas, & Smith, 1999; Myers & Diener, 1995) 청소년에게도 타당한지 검증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대인간 특성(예: 부모의 지지, 애착관계)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의철, 박영신, 1999;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Ma & Huebner, 2008). 그러나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연구의 수가 부족하므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다양한 이론의 관점(예: 애착이론)에서 청소년의 대인 간 특성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으나 관계성을 기본욕구 중의 하나로 보는 자기결정성 이론(Ryan & Deci, 2000)이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부모-청소년 관계에서

청소년이 충족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상호 인과적 효과를 살피는데 초점을 둔다.

자기결정성 이론(Ryan & Deci, 2002)의 하위 이론 중의 하나인 기본욕구 이론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자율성, 유능성과 행복의 관계를 주로 살폈고 자기결정성 이론의 제안을 지지하였다(e.g., Levesque, Zuehlke, Stanek, & Ryan, 2004). 반면, 관계성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었다(e.g., Ma & Huebner, 2008; Reis, Sheldon & Gable, Roscoe, & Ryan, 2000). 세 가지 기본욕구는 학업, 학교, 일 또는 직장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으며, 대인관계(예,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속에서도 상대와의 언어적·비언어적 피드백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 관계 속에서 충족된 욕구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결과들은 관계 속에서 중요한 욕구가 충족될수록 행복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예, 한소영, 신희천, 2006; 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 욕구에 초점을 두고, Ryan과 Deci(2002)의 관계성 정의를 원용하여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을 ‘청소년이 부모와 소속감, 연결을 느끼고 애정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초하여 기본욕구와 행복의 관계를 살핀 한 연구는 다른 욕구들에 비하여 관계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La Guardia, Ryan, Couchman과 Deci(2000)는 다수의 관계(예, 부모, 친구 등)에서 세 욕구가 충족될수록 안전애착을 형성하고, 안전애착은 다시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계성은 이후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전애착의 형성에

다른 두 욕구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효과를 보여, 행복에도 더 강한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록 청소년기가 아동기 초기부터 주된 애착대상이었던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시기이나(예, 친구, 교사)(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청소년은 부모에게 여러 측면에서 의지하며 상호작용을 계속한다. 그리고 부모는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사회적 지지원이다. 그래서 청소년-부모 관계는 친구관계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특성을 가질수록 삶에 만족하고, 부정적 특성(예, 부모자녀 간의 갈등)은 부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박영신 등(2000)과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2002)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에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교사의 사회적 지원보다 부모의 지원이 삶의 만족에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박영신 등, 2000). 전신현(1996)도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준호(1990)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부모관련 관계 특성이 삶의 만족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에 기초해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들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양육 전략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런 제안은 부모와의 관계 특성이 삶의 만족의 원인이 된

을 시사한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Ma & Huebner, 2008). 다른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부모와의 대인간 특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방향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박영신 등, 2000). 이 연구들은 청소년의 부모관련 관계 특성의 변화(성숙이나 개입을 통한 변화)가 삶의 만족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한 시점에서 부모와의 관계 특성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제한이 있다. 인과관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 특성과 삶의 만족이 서로 공변하고(공변성), 시간적으로 앞선 변인에서의 변동이 이후 시점의 변인에서의 변동에 관계를 보여야 하며(연쇄성), 두 변인의 공변이 제 삼의 변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비허위적 관계), 두 변인의 인과관계 설정에 대한 이론적지지(이론적 설명)를 필요로 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선행연구들은 공변성, 비허위적 관계, 이론적 설명을 충족하고 있으나, 연쇄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험연구나 종단적 설계를 이용하여 극복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이 어떤 수준에 정체하기보다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계속 변화된다고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 역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변화하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 동안의 영향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행복 간의 종단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핀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들은 부모와의 관계성이 청소년의 행복에 중요하거나 친구와의 관계성만큼 중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세 가지 기본욕구와 행복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 친구와의 관계성은 동일 시점의 우울,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6개월 뒤의 우울,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 모두와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Veronneau, Koestenr, & Abela, 2005). 반면, 부모와의 관계성은 동일 시점의 우울, 부정적 정서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6개월 뒤의 우울, 부정적 정서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로부터의 욕구충족 모두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부모로부터의 욕구충족과 친구로부터의 욕구충족의 삶의 만족에 대한 관계강도는 근소한 정도로 다를 뿐이었다(이민희, 200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자율성과 유능감의 삶의 만족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친구와의 관계성은 삶의 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결국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또래와의 관계성은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일관적이지 못하나, 적어도 부모와의 관계성을 충족할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성 이론을 지지하였다.

한편, 삶의 만족이 다수의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간주되어 온 것과 다르게, 일부 연구자들은 청소년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예, 낮은 외현화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알아보았다(예, Park, 2004). 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Diener, 2000). 개인이 자신의 삶에 높은 정도로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자신의 삶에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이 현재까지 삶을 잘 수행해 왔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런 평가는 유능감과 같은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삶에 낮은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 자신의 계속된 수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개인은 현재까지 삶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패했다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좌절은 외현화 또는 내현화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

현재까지 삶의 만족이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수는 제한적이거나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Mcknight, Huebner와 Suldo(2002)는 스트레스 사건에 의하여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외현화·내현화 문제도 증가하는지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사건들로 인하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때 외현화·내현화 문제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등(2000)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을 예측하고, 삶의 만족이 다시 학업성취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삶에 만족하고, 이는 다시 더 나은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결과는 삶의 만족이 환경적 경험과 행동적 반응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인지적 개입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Mcknight, Huebner, & Suldo, 2002; Park, 2004). 후자의 결과는 삶의 만족이 대인간 및 개인 내 심리적 특성과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인지적 개입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앞서 제시한 설명과 선행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삶에서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삶의 만족이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청소년이 삶에 만족할수록 외현화·내현화 문제가 줄어들고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은 청소년이 삶에 만족할 경우 문제행동을 덜 드러내고 학업성취가 좋을 수 있어 부모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높아지면 문제행동을 덜 드러낸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소속감과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학업성취가 향상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이 부모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관계성 충족에 이를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장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관계성을 충족할수록 2년 뒤 삶의 만족에서의 변화에 정적인 종단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설화 한다. 반면, 그 역의 관계는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현재로서는 확고한 가설을 수립하기 어려워 본 연구가 첫 시도를 하는 것으로 다분히 탐색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성과 삶의 만족의 상호 인과적 효과를 종단연구를 통해 밝히는 데 초점을 두는 이유는 청소년의 발달 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어떤 심리적 측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른 측면의 발달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종단연구가 횡단연구보다 더 잘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단지 이론적 근거와 횡단적 상관연구에만 의존해서 개입할 경우 조작한 변인이 정말로 다른 변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자기존중감의 향상이 긍정적인 결과들(예, 학업성취)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 아래 교사, 부모, 상담자 등은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일반적 자기존중감이 중요한 발달 결과(예, 학업성취)의 원인이기보다 오히려 그 역이 성립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예,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Swann, Chang-Schneider, & McClarty, 2007). 즉, 일반적 자기존중감이 학업성취와 같은 결과의 원인이기 어렵다는 결과는 이제까지 학교 중도탈락율을 낮추거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일반적 자기존중감이 아닌 구체적인 학문적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와 상호 연쇄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Marsh & O'Mara, 2008). 결국 청소년의 발달을 돕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조작되어야 하는 변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인의 상호

적 인과 효과(reciprocal causal effects)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Finkel, 1995). 예를 들어, 삶의 만족과 부모와의 관계성의 초기(예, 1차 시점) 값이 각각의 이후(예, 3차 시점) 값에 대하여 갖는 자기회귀 효과를 통제된 뒤에 부모와의 관계성(예, 1차 시점)의 삶의 만족(예, 3차 시점)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가 삶의 만족(1차 시점)의 부모와의 관계성(3차 시점)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보다 더 크지 혹은 그 역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상호적 인과 효과를 추론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다(Finkel, 1995).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간의 종단적 상호 인과 효과를, 첫 조사가 이루어진 중학교 2학년 시점, 2년 뒤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점, 다시 2년 뒤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간격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1, 3, 5차년도 자료만을 분석한 이유는 첫 2년 간격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삶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 선행연구들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이 낮아지고 변화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 3의 시점에서 입시라는 환경적 압박이 가장 강한 시기이므로 고 1 때보다 삶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03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1, 3,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1차년도 참가자는 3449명, 3차년도 참가자는 3125명, 5차년도에는 2967명이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성과 삶의 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 시점 모두에서 가족 구성형태에 친부모가 계신다고 응답한 참가자 2463명을 대상으로 한 후, 결측치가 대체되지 않은 24명을 제외하고, 243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나머지 986명은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형태를 보였다(예, “친아버지만 계신다.” “친어머니와 양아버지(계부)가 계신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2439중 남학생이 1236명(50.7%), 여학생은 1203명(49.3%)이었다.

측정도구

관계성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의 문항들 중에서 자기 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Ryan & Deci, 2000) 중 관계성에 부합되는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특히 이 문항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관계성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예,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다솜, 임인혜(2007)도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면서 이 문항들을 부모와의 관계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리커트식 5점 평정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1차년도의 내적합치도는 .85, 3차년도의 내적합치도는 .88, 5차년도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삶의 만족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설문지의 문항들 중에서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예, “학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통계분석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간의 중단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검증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의 장점은 횡단 자료를 수집한 후 선행이론에 기초해 변인들 간의 인과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정된 관계를 해석하는 기존 횡단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프로그램은 EQS 6.1을 이용했다.

Scaled χ^2 차이검증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기본적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 가정은 연속 변인이 아닌 서열 변인이 사용될 때 종종 침해된다. 본 연구의 삶의 만족 변인은 1점에서 5점 척도로 연속 변인으로 보기 어렵고, 서열변인에 가까우며 이로 인하여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 때 χ^2 값은 다변량 정상성 가정의 침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값이 부풀러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교정해주는 것이 Satorra-Bentler scaled χ^2 값이다(Bentler, 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형비교를 위하여 χ^2 값을 사용하지 않고 scaled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측정변수의 구성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였고, 한국청소년패널 자료에서 측정된 삶의 만족과 관련된 문항이 단일 문항이어서 삶의 만족은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관계성 문항은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다변량 정상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 되므로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몇 개의 변수를 합해서 하나의 측정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주로 선택한다(배병렬, 2004;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이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의 제안을 따라 부모에 대한 관계성(1차년도)의 요인 개수를 한 개로 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요인계수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 각 묶음점수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계수가 동일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문항의 요인계수의 순위에 기초하여 각 묶음점수에 할당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측정변수에 1순위, 6순위, 두 번째 측정변수에 2순위, 4순위, 세 번째 측정변수에 3순위, 5순위 문항을 할당하였다. 그리고 이런 묶음을 3차년도와 5차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결측치의 처리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유사한 반응 패턴을 보인 사례의 점수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식(similar response pattern imputation)을 택하였다(Jöreskog, 2002). 전통적으로 목록

별 제거(listwise), 대응별 제거(pairwise)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목록별 제거는 많은 사례를 제거하여 유효표본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대응별 제거는 해가 구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배병렬, 2004).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하여 PRELIS 2.54를 이용하였고, 1차년도에 반응에 기초하여 3차년도와 5차년도의 자료를 대체하였다. 전체 2463 사례 중에 29명의 사례가 결측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중 다섯 사례가 유사한 반응 패턴을 보인 사례를 이용하여 대체되었고, 나머지 24 사례는 제거되었다.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측정모형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종단연구에서 잠재변수를 반복 변수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 변수의 개념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인을 측정한다는 종단적 구인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Taris, 2002). 이러한 구인동일성은 형태동일성(각각의 측정 시점에서 측정변수와 구인의 관계 방식이 동일한 것), 약한 구인동일성(요인 계수의 동일성 혹은 측정동일성), 강한 구인동일성(절편의 동일성), 엄격한 구인동일성(잔차 동일성)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검증되며 후자로 올수록 엄격한 검증이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전체 조건으로는 약한 구인동일성이 검증되면 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Little, Preacher, Selig, & Card, 2007). 종단적 측정동일성이 검증될 때 응답자들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그러나 삶의 만족의 경우에는 단일문항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측정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관계성에 대한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잠재변인으로 설정된 관계성에 표기된 1, 3, 5는 각각 1차년도, 3차년도, 5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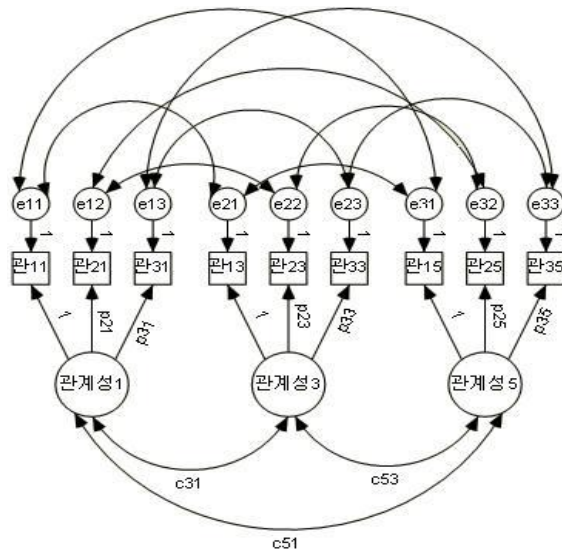


그림 1. 관계성의 측정모형

년도의 시점을 나타낸다. 각 측정변인들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나타내기 위해 표기된 기호들은 동일화 제약을 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p21, p23, p25(5차년도)의 2번 측정변수를 나타냄)는 동일한 측정변인(예, 관계성 2번 측정변인)으로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각각의 잠재변인으로 설정된 관계성에 대해 갖는 요인계수가 시간이 경과해도 동일하다는 것(stationarity)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Pitts, West, & Tein, 1996).

각각의 시점에서 관계성 간의 공변량 관계를 나타낸 c31, c53, c51은 한 시점의 관계성이 이전 시점의 관계성에 대하여 갖는 안정성 계수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Taris, 2002). 그리고 반복측정을 하는 종단 연구의 경우에 오차항 간의 공변량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허용하였다(Bollen, 1989; Jöreskog, 2002; Pitts, West, & Tein, 1996). 일반적으로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할 경우 오차항 사이에 공변량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측정변수를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경우 오차항 사이에 공변량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측정변인의 측정오차 중 일부는 단순 무선오차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동일 잠재변인의 측정 지표로 구성된 다른 측정변인들과 공유되지 않는 체계적인 변량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Jöreskog, 2002, 31쪽 참조). 만약 이런 공변량 관계를 모형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안정성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itts, West, & Tein, 1996).

측정동일성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제시한 모형에 아무런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측정모형 1)에 비하여, 각 시점의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p21, p23, p25 간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고, p31, p33, p35 간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측정모형 2)의 적합도 지수가 기저모형에 비해 의미 있을 정도로 나빠지지 않으면 된다. 측정모형 2가 기저모형에 비해 의미 있을 정도로 적합도가 나쁠 경우 부분 측정동일성을 검증한다(측정모형 3). 측정동일성을 검증하는 이유는 문화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의 평정척도에 반응할 때, 또는 동일한 집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한 척도에 반복하여 응답할 때, 그 평정척도의 단위를 집단 간에 또는 다른 시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측정동일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 측정변수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계수가 의미 있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된다. 모든 문항들이 동일한 요인계수의 크기를 보이면 완전 측정동일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너무나 엄격한 기준이다. 연구방법론자들은 부분 측정동일성이 성립되면 두 집단 간의 구조관계를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에 측정된 구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Little, Preacher, Selig, & Card, 2007). 부분 측정동일성은 두 개 이상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계수가 집단간에 혹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31과 c53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측정모형 4).

구조모형의 검증

이 연구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잠재변인인 관계성과 측정변인인 삶의 만족에 표기된 1, 3, 5는 측정시점을 나타낸다. 관계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경로에 사용된 기호들은 동일화 제약을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a1, a2, b1, b2는 한 시점의 관계성이 이전 시점의 관계성에 대하여 갖는 자기회귀 계수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c1, c2, d1, d2는 한 시점의 삶의 만족이 이전 시점의 관계성에 대하여 갖는 효과와 이전 시점의 관계성이 다음 시점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갖는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해서 청소년의 관계성과 삶의 만족 간의 중단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의 다섯

개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 1(기저모형). 측정모형 검증에서 관계성의 중단적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측정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예, (p21, 관계성1)=(p23, 관계성3), 단, 측정모형에서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된 p31과 p35간에는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음)을 가하였다. 각 시점에서 동일한 측정변인의 오차항 간에 공변량을 허용하고(예, e11, e21), 방해 오차항 간에 공변량을 허용하고(예, d1, d4), 자기회귀 계수(예, a1, a2), 교차지연 회귀계수(예, c1, c2)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이다.

모형 2. 관계성의 자기회귀 계수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 1에 추가적으로 a1, a2 경로에 동일화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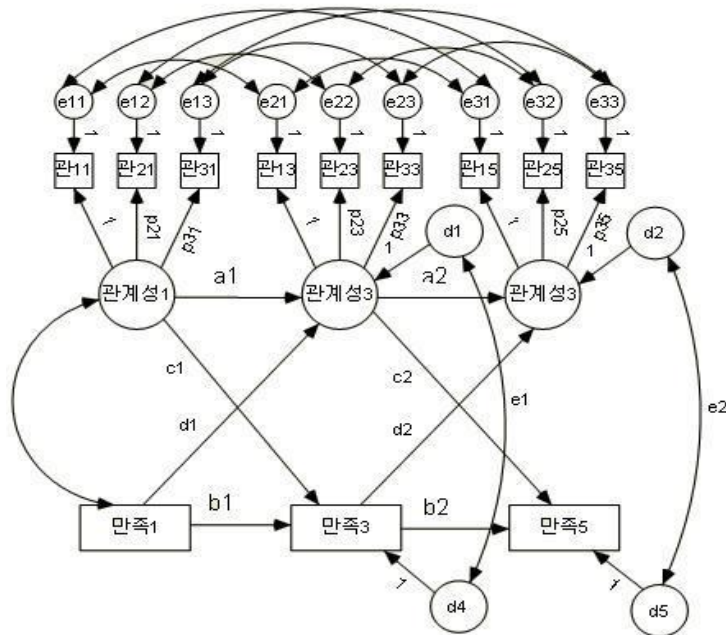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3. 삶의 만족 자기회귀 계수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 2에 추가적으로 b1, b2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4. 1차 시점의 관계성이 3차 시점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갖는 효과가 3차 시점의 관계성이 5차 시점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갖는 효과가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3에 추가적으로 c1, c2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실제 검증에서 모형 3이 채택되지 않아, b1, b2 경로의 동일화 제약을 추가적으로 해제하였음. 모형 5에서도 동일함).

모형 5. 1차 시점의 삶의 만족이 3차 시점의 관계성에 대하여 갖는 효과가 3차 시점의 삶의 만족이 5차 시점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갖는 효과가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 4에 추가적으로 d1, d2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연구결과

측정모형 검증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이 종단적 측정동일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1에 제시한 결과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이 부분 측정동일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먼저 기저모형(측정모형 1)의 적합도 지수를 보면 Scaled χ^2 은 유의하지 않았고($p > .05$), 나머지 적합도 지

수는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측정동일성모형(측정모형 2)의 적합도 지수를 보면 Scaled χ^2 은 유의하였고($p < .05$), 나머지 적합도는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였다. 측정동일성이 성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관계에 있는 측정동일성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위계적 모형 간의 Scaled χ^2 값의 차이 값이 χ^2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Satorra와 Bentler (2006)가 개발한 절차를 따라 Scaled χ^2 값의 차이검증¹⁾을 한 결과 Scaled χ^2 차이가 유의하였다($p < .05$). χ^2 차이 검증도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박광배, 2004;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2005),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RMSEA와

1)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k0 (제약이 더한 모형의 척도화 계수; 예, 모형 2) = T_0 (ML 추정의 χ^2) ÷ \bar{T}_0 (Scaled χ^2) ② k1 (제약이 덜한 모형의 척도화 계수; 예, 모형 1) = T_1 (ML 추정의 χ^2) ÷ \bar{T}_1 (Scaled χ^2) ③ 모형비교 a. Difference (수정되지 않은 χ^2 값 차이 계산) = $T_0 - T_1$. b. d(자유도 계산) = (d0 - d1)를 계산한 후, 차이검증에 대한 k (Satorra-Bentler 척도화 계수 계산) = (d0k0 - d1k1) ÷ d. ④ Scaled χ^2 차이 값 계산 $\bar{D} = D/k$.

예를 들어, 측정모형 1과 측정모형 2의 Scaled χ^2 값의 차이검증을 보자. ① k0 = 34.73 (모형 2의 χ^2) ÷ 31.07 (모형 2의 Scaled χ^2) = 1.11779 ② k1 = 19.73 (모형 1의 χ^2) ÷ 17.27 (모형 1의 Scaled χ^2) = 1.14244. ③ 모형비교: a. Difference (수정되지 않은 χ^2 값 차이 계산) = 34.73 - 19.73 = 15. b. d (자유도 계산) = 19 - 15 = 4, 차이검증에 대한 k(satorra-Bentler 척도화 계수) = (19*1.11779 - 15*1.14244) ÷ 4 = 1.02535. ④ \bar{D} difference = 15 ÷ 1.02535 = 14.62915.

표 1.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지수	χ^2	Scaled χ^2	df	모형비교	Δ Scaled $\chi^2(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1	19.73(T_1) ^a	17.27($\overline{T_1}$) ^a	15			.999	1.00	.008
측정모형 2	34.73(T_0) ^a	31.07($\overline{T_0}$) ^a	19	1 대 2	14.63**(4)	.998	.999	.016
측정모형 3	23.17	20.61	18	1 대 3	3.33(3)	1.00	1.00	.008
측정모형 4	24.50	21.86	19	3 대 4	1.26(1)	1.00	1.00	.008

주. 측정모형 1: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측정모형 2: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 이르는 동일한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측정모형 3: 부분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관계성 3변 측정변인의 1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의 동일화 제약을 해제한 모형. 측정모형 4: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성 계수들(cross-time correlations)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적합도 지수는 ML, Robust 방식으로 구했음.

^a는 각주 1)에 제시한 Scaled χ^2 값의 차이검증의 예를 들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TLI를 살폈다. RMSEA와 TLI 또한 다소 나빠졌기 때문에 완전 측정동일성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부분 측정동일성이 성립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M 검사 결과를 살펴서 χ^2 값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제약부터 순서대로 제거하며 1차년도 관계성 3변 변수(관31)와 5차년도 관계성 3변 변수(관35)의 동일화 제약을 해제한 측정모형 3을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Scaled χ^2 차이값은 유의하지 않았고($p > .05$), TLI는 약간 상승하였고, 나머지

지수는 기저모형과 동일하였다. 이는 부분 측정동일성의 성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조모형 검증을 위한 선행조건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관계성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차시점과 3차시점의 공변량과 3차시점과 5차시점 간의 공변량이 동일한지를 검증하였다(측정모형 4). 두 개의 공변량에 동일화 제약을 가하고, 측정모형 3과 비교하여 Scaled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Scaled χ^2 차이값은 유의하지 않았고($p > .05$), 나머지 적합도

표 2. 측정모형 4에 대한 요인계수 추정치

	관계성 1(1차년도)			관계성 3(3차년도)			관계성 5(5차년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측정변수 1	1.00		.821	1.00		.849	1.00		.845
측정변수 2	1.07***	.015	.859	1.07***	.015	.902	1.07***	.015	.900
측정변수 3	1.01***	.019	.720	1.01***	.019	.754	1.09***	.021	.810

주. *** $p < .001$. 모든 계수 값은 ML, Robust 방식으로 추정된 것임. 관계성1과 2의 공변량(상관)은 .938***(.545)이고, 관계성 2와 3의 공변량(상관)은 .938***(.541)이고, 관계성1과 3의 공변량(상관)은 .828***(.459)임.

지수는 측정모형 3과 동일하였다. 이는 공변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계성이 서로 다른 시점의 2년 간격에서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모형에서 산출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공변량은 표 2와 같다. 모든 경로계수와 공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에서 부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평정 척도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구조모형 검증을 통하여 구인들 간의 종단적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Hair et al, 2006).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간격 시점에서 자기회귀 계수들이 동일한지(a1과 a2, b1과 b2), 교차지연 회귀계수가 동일한지(c1과, c2, d1과, d2)를 검증하고, 관계성과 삶의 만족 간의 인과적 방향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5개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구조모형 1에서 모형 5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기저모형으로 삼은 구조모형 1에 비해 관계

성의 자기회귀 계수(a1, a2)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모형 2의 적합도 지수를 보면 Scaled χ^2 차이값은 유의하지 않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와 RMSEA는 근소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관계성의 자기회귀 계수 a1과 a2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구조모형 2에 비해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 계수(b1, b2)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모형 3은 Scaled χ^2 차이값이 유의하였고, 다른 적합도 지수도 근소하게 나빠졌다. 따라서 이는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 계수가 b1과 b2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후의 모형에서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 계수의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구조모형 4는 구조모형 2에 추가적으로 관계성이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갖는 효과 경로 c1, c2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구조모형 2와 4를 비교한 결과 Scaled χ^2 차이값이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적합도 지수는 근소하게 향상이 되었다. 이는 1차 시점의 관계성이 3차 시점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갖는 효과와 3차 시점의 관계성이 5차 시점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갖는 효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조모형 5는 구조모형 4에 추가적으로 1차 시점의 삶의 만족이 3차 시점의 관계성에

표 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적합지수	χ^2	Scaled χ^2	df	모형비교	Δ Scaled $\chi^2(df)$	TLI	CFI	RMSEA
구조모형 1	288.32	251.71	40			.971	.983	.047
구조모형 2	292.67	255.28	41	1 대 2	3.66(1)	.972	.983	.046
구조모형 3	302.62	264.51	42	2 대 3	9.51**(1)	.971	.982	.047
구조모형 4	293.14	256.03	42	2 대 4	0.43(1)	.972	.983	.046
구조모형 5	293.82	256.17	43	4 대 5	0.55(1)	.973	.983	.045

주. ** $p < .01$, 적합도 지수는 ML, Robust 방식으로 구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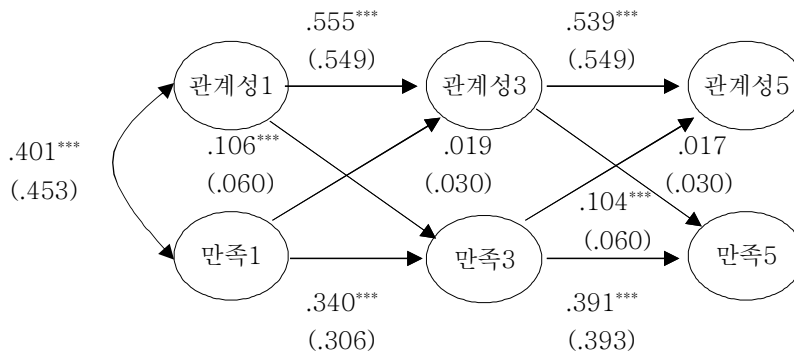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의 추정 결과

주. *** $p < .001$. () 속: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밖: 표준화 회귀 계수.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로의 비표준화 회귀계수는 동일함.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 시점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구해지므로, 동일화 제약을 가한 경로 간에도 달라진다.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계수는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았음.

대하여 갖는 효과와 3차 시점의 삶의 만족이 5차 시점의 관계성에 대하여 갖는 효과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χ^2 차이 값이 유의하지 않고, 다른 적합도 지수도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두 효과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형 5에서 구해진 추정치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삶의 만족은 관계성에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고, 관계성은 삶의 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 계수는 3차 시점에서 5차 시점에 대하여 갖는 효과가 1차 시점에서 3차 시점에서 갖는 효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비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함).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청소년패널 종단자료(1차, 3차, 5차 시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결정성 이론(Ryan & Deci, 2000)에서 제안한 기본욕구 충족의 정도와(예, 관계성) 행복(예, 삶의 만족)간의 종단적 상호인과 효과(reciprocal causal effects)를 검증하고 인과의 방향을 추론하는 것이었다. 1차, 3차, 5차 시점에 측정된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성과 삶의 만족 변인을 사용하여 설정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시점과 3차 시점 간의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의 자기회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차 시점과 5차 시점 간의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의 자기회귀 효과도 유의하였으며, 이 둘의 자기회귀 효과 크기는 동일하였다. 둘째, 1차 시점과 3차 시점 간의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의 자기회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3차 시점과 5차 시점 간의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의 자기회귀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두 개의 효과 중에서 후자의 자기회귀 효과가 더 강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간의 인과적 방향을 추론 하는데 살펴야 할 중요한 효과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이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갖는 교차지연 효과와 삶의 만족이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에 대하여 갖는 교차지연 효과이다. 1차 시점의 관계성은 3차 시점의 삶의 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3차 시점의 관계성도 5차 시점의 삶의 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의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또한 이 두 개의 효과의 크기는 동일하였다. 넷째, 삶의 만족이 관계성에 대하여 갖는 교차지연 효과를 알아본 결과, 1차 시점의 삶의 만족은 3차 시점의 관계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 3차 시점의 삶의 만족도 5차 시점의 관계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의 이후 시점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이전 시점의 관계성과 삶의 만족이 다음 시점의 관계성과 삶의 만족에 대하여 각각 갖는 안정성 효과를 통제하고 서도(Finkel, 1995; Taris, 2000), 두 변인이 서로에 대한 교차지연 효과에서 관계성은 삶의 만족에 대하여 유의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1차 시점과 3차 시점 사이와 3차 시점과 5차 시점 사이 모두에서 반복되었다.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는 잠정적으로 관계성이 삶의 만족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본욕구의 충족이 필요하다라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지지하였고(Ryan & Deci, 2000), 두 변인 간의 상호 인과 효과

(reciprocal causal effect)의 가정은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이 연구의 결과들은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속되고 친밀하다는 것을 느끼는 관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려는 예방 프로그램과 처치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2년 간격의 교차지연 효과는 중학교 시점에서부터 고등학교 시점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성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비록 청소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립하여가고 있으나, 여전히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의 부적응(예, 인터넷 중독)이 낮아진다는 선행 중단연구의 결과와(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부모와의 관계성이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선행 중단연구의 결과(김아영 외, 2007)를 종합하면 청소년과 부모 간의 긍정적인 관계적 측면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부정적 심리기능 모두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 상담의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있어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부모가 청소년의 발달적 과정에서 보이는 변화무쌍한 행동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관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대가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예, 상

대방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과 상대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지지받는 것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살핀 한 연구(Deci, La Guardia, Moller, Scheiner, & Ryan, 2006)는 관계 속에서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지를 제공하는 것과 지지를 제공받는 것 모두가 심리적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런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화방식을 통해서 자녀를 지지하도록 가르쳐온 지금까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청소년이 부모를 지지할 수 있는 가족 내 친사회적 행동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관계성 욕구는 지지받는 것을 통해 충족될 수도 있지만 지지하는 것을 통해 충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성의 자기회귀 효과는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변화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런 부모와의 관계성은 다음 시점의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더불어 삶의 문제(예, 인터넷 중독)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초기 관계부터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과 조력체계는 삶의 만족이 손상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와의 관계성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삶의 만족이 내현화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Mcknight, Huebner, & Suldo, 2002; Park, 2004)는 상담자가 기존의 병리적 접근과 긍정

심리학의 관점 모두에서 청소년 내담자의 증상과 삶의 만족을 살펴야 함을 제안한다. 즉, 상담자는 병리적 접근에서 주로 평가하던 우울, 불안, 분노, 공격 행동 등의 내현화 외현화 문제의 심각도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 내담자의 삶의 만족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그 접근에 상관없이 사례개념화 단계에서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부모와의 관계성이 삶의 만족에 어떻게 관계가 되고, 삶의 만족은 다시 어떻게 내현화 외현화 문제에 관계될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형성되면 자신의 가설이 타당한지 적절한 상담협력관계가 형성된 뒤에 내담자에게 잠정적 형태로 제시하여 확인한 후 내담자가 동의할 경우 가설에 따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Murphy & Dillon, 2003; Walborn, 1996).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기본욕구의 한 측면인 관계성과 삶의 만족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살피는데 그쳤다. 자기 결정성 이론의 기본가정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모두가 청소년의 행복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상대적 영향력은 어떤지를 검증하여 왔다(예, 김은주, 2007).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유능성을 포함하여 이들이 다음 시점의 삶의 만족에 대하여 인과적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지 못하였고, 기본욕구 변인들 사

이의 삶의 만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을 갖는다. 추후 연구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인과적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상대적 영향력은 어떤지 살필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정된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였지만, 이 모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모델임을 뜻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삶의 만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기타 변인들을 포함시키는 다른 모델들 또한 마찬가지로 타당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변인들을 포함시켜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금주 (1995). KLSSA 검사에 의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5-16.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151-158.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적 분석: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아영, 이명희, 전해원, 이다솜, 임인혜 (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유능감 및 관계성과 비행 간의 중단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1(4), 945-967.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준호 (1990). 청소년 비행의 연구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창간호(6).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박광배 (2004).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교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배병렬 (2004). 구조방정식모델을 위한 SIMPLIS 활용과 실습. 서울: 청목출판사.
-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 이명순, 변미희 (2007). 청소년에 대한 가족지지가 욕구충족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1), 61-81.
- 이민희 (2007). 학습장면에서 자기결정론의 동기화 경로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신현 (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 25(4), 63-82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상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 상담연구*, 9(1), 7-26
- 최희철, 김병석, 김지현 (2005). 남자 대학생의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상담학연구*, 6(1), 61-73.
-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tkinson, R. (1988) *The teenage world: Adolescent self-image in ten countries*. New York: Plenum Press.
- Baumeister, R. R.,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ntler, P. M. (2006). *EQS 6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Encio, CA: Multivariate Software, Inc.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d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mmons, R. A. & Diener, E.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Finkel, S. E. (1995). *Causal analysis with panel data*. Thousands Oaks, CA: Sage.
- Gilman, R., Huebner, E. S., & Laughlin, J. E. (2000). A first study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with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2), 135-16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o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öreskog, K. G. (200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ordinal variable using LISREL*. Retrieved October, 2, 2008, from <http://www.ssicentral.com>.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evesque, C., Zuehlke, N., Stanek, L., & Ryan, R. M. (2004).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1), 68-84.
- Little, T. D., Preacher, K. J., Selig, J. P., & Card, N. A. (2007). New developments in latent variable panel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s, 31*(4), 357-365.
- Ma, C. Q., & Huebner, E.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Marsh, H. W., & O'Mara, A. (2008). Reciprocal effects between academic self-concept, self-esteem, achievement, and attainment over seven adolescent years: Unidimensional and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of self-concep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542-552.
- Mccullough, G., Huebner, E. S., & Laughlin, J. E. (2000). Life events, self-concept, and adolescents' positiv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37*(3), 281-290.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2002).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 Murphy, B. C., & Dillon, C. (2003). *Interviewing in action: Relationship, process, and change*.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 Park, N. (2005).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2), 209-223.
- Park, N., & Huebner, E. S.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levels and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44-456.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Pitts, S. C., West, S. G., & Tein, J-Y. (1996). Longitudinal measurement models in evaluation research: Examining stability and chang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9*(4),

- 333-350.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 (2000). Daile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4), 419-435.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E. D. Deci & R. M. Ryan,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wann, W., Chang-Schneider, C., & McClarity, K. L. (2007). Do people's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 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62, 84-94.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Taris, T. W. (2002). *A primer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Thousands Oaks, CA: Sage.
- Veronneau, M-H., Koestenr, R. R., & Abela, J. R. Z. (2005).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nd 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2), 280-292.
- Walborn, F. S. (1996). *Process variables: Four common element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원 고 접 수 일 : 2009. 1. 19
수정원고접수일 : 2009. 3. 26
게 재 결 정 일 : 2009. 5. 16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Relatedness with Parents and Life Satisfaction

Heecheol Choi

Dankook University

Mae-Hyang Hwa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eun-Jin Kim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relatedness with parents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basis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anel data of adolescents' relatedness with parents and life satisfaction in first, third, and fifth wave from the Korean Adolescents Policy Research Institute were evaluate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relatedness with parents and life satisfaction. Results revealed adolescents' relatedness with parents predicted subsequent life satisfaction, over and above the effect of previous adjustments, whereas life satisfaction did not predict subsequent adolescents' relatedness with parents.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basic need, relatedness, life satisfaction, panel data